

스톡홀름협약, 독성 농약 규제 본격화

5월17일 법적 구속력 발효 ... 다이옥신 · DDT · PCBs 포함 12가지 규제

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독성 농약을 추방하기 위한 <잔류성유기오염물질(POPs)에 관한 스톡홀름협약>이 5월17일 발효됐다.

유엔환경계획(UNEP)에 따르면, 2001년 체결된 스톡홀름협약은 프랑스가 2004년 2월 50번째 비준국이 됨에 따라 5월17일부터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다.

스톡홀름협약은 잔류성과 독성이 높아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이옥신, 톡사펜, 알드린, DDT, PCBs 등 12가지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의 생산과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협약이다.

클라우스 퇴퍼 UNEP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“스톡홀름협약은 인류에게 알려진 맹독성 화학물질 중 일부의 생산과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특히 가난한 나라들에서 생명을 구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게 될 것”이라고 논평했다.

또 “수십년 동안 맹독성 화학물질들이 암을 유발하고 신경 · 생식 · 면역체계를 손상시켜 인간과 동물의 목숨을 앗아가고 병들게 했다”고 지적했다.

협약의 발효에 따라 국제원조 기관들과 각국 정부는 독성 화학물질에서 후대를 보호하기 위해 수년간 최소 5억달러를 투자하게 될 전망이다.

각국 정부는 2005년 초 우루과이의 폰타 델 에스테에서 열리는 협약 당사국회의 첫번째 회의에서 잔류성 유기오염 물질들을 추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논의 · 시행하게 된다.

<화학저널 2004/05/18>